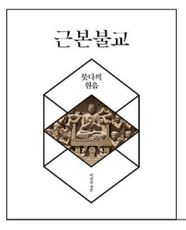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24~11/30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	현천 스님	선요가	6	낡은 옷을 벗어라	법정 스님	불교신문사
2	성자와 범부가 함께읽는 금강경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7	선불교의 뿌리	김성철	오타쿠
3	산스끄리뜨 금강경 역해	현진 스님	불광출판사	8	딱돌 해설서	중암선해	금빛소리
4	지금 이대로 좋다	법륜 스님	정토	9	네가지 마음챙기는 공부	각묵 스님	초기불전연구원
5	죽기전에 꼭 읽어야할 법화경	손종호	운주사	10	진리와 자유의 길	법정 스님	자식을만드는지식

책세상

붓다 원음인 '근본불교'를 말하다



근본불교
이중표 지음
불광 펴냄/1만7천원



근본불교, 잘 정리된 수행 체계
저자, 놓치기 쉬운 맥락 짚어줘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저자 이중표 전남대 명예교수<사진 오른쪽>는 '근본불교(Fundamental Buddhism)'와 대승불교의 연결고리를 연구해 온 한국 불교학계의 석학이다. 대승불교 전통인 한국에서 〈아함경(阿含經)〉 〈니까야〉가 소승, 남방불교 경전으로 치부돼 주목받지 못한 시기부터 그는 이 분야 연구에 매진해 왔다. 이유는 명쾌하다. 〈아함경〉과 〈니까야〉를 모든 불교의 뿌리인 '근본불교'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불교 최초기, 붓다의 원음이 가장 잘 간직된 근본경전 〈아함경〉 〈니까야〉의 바른 이해는 곧 대승불교의 바른 이해로 이어진다. 대승불교 전통인 한국에서 이 분야가 더욱 연구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때 '원시불교', 또는 '초기불교'라고도 불린 이 분야에 관해서 이중표 명예교수는 분명히 말한다. "근본경전을 통해 전승되는 붓다의 가르침을 모든 불교의 근본이라는 의미에서 '근본불교'라고 불러야 한다."

저자의 바람대로 이 책 〈근본불교〉는 불교의 원류를 찾아가는 길을 제시한다. 중도(中道)·연기(緣起)·열반(涅槃) 등 불교 핵심 교리를 왜곡 없이 붓다의 원음으로 통찰할 수 있다.

붓다가 살았던 시대는 도처가 죽음이었다. 질병으로 죽고, 굶어 죽고, 전쟁으로 죽고, 차별받아 죽었다. 짐승과 곤충 같은 생물까지 시야를 넓히면 상황은 더 참담하다. 대부분 살이 찢겨 잡아먹히며 고통스럽게 죽어갔다. 생명 있는 존재가 천수를 누린다는 것은 기적이었다.

사방은 죽음으로 넘쳐나는데 본능은 끊임없이 삶을 추구한다. 살기 위해 두려움 속에서 이리저리 날뛰어 보지만 모두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붓다는 출가했다.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것이다. 자신의 괴로움을 너무나도 잘 안 붓다는 남의 괴로움도 잘 알았다. 계급, 인종에 따라 고통의 강도가 다를 리 없다.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런 것 따위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체감했을 것이다. 붓다 당시에도 인도는 신들의 나라였다. 이름을 모두 나열할 수 없을 만큼 신이 많았다. 하지만 그는 신들이 살아있는 생명을 돕지 않는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았다. 예상컨대 신들을 부정했을 것이다.

처음에는 의심으로 시작했다. 정말 신은 있을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이 스스로 되뇌었겠는가. 하지만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다. 핵심은 '마음'이었다. 마음의 껍질을 벗기고 잘게 쪼개보았다. 힘든 싸움이었지만, 고도의 집중력과 생명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음식만 있다면 한계비용은 제로였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죽을 각오도 되어있다.

드디어 그는 깨달았다. 마음속에는 자아(自我)라는 생각, 분별심이 사라졌다. 그를 옭아매던 번뇌는 적멸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주리라 결심했다. 대상은 무차별이었다. 인종, 성별, 계급을 따지지 않았다. 태반이 글씨조차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중생들을 대상으로 붓다는 대화하기를 꺼리지 않았다. 끊임없이 대화했다. 상대를 살피고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인내심 같은 건 없었다. 참고 견디는 인내라는 아량은 '내가 인내하고 있다'라는 번뇌에 빠진 자들이나 떠올리는 생각이다. 붓다는 그렇게 45년 동안 차별 없이 자신과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만나주었다. 근본경전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담백하고, 뼈를 때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승불교가 성립하고 중관(中觀), 유식(唯識) 같은 정밀한 교학 체계를 보면 정말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붓다가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

그러나 근본불교를 접하면 이러한 생각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불교의 목적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붓다는 그 방법을 잘 정리된 수행 체계로 제시했다. 수행의 대상은 본인의 마음이다. 마음에 관해서는 지겨울 만큼 많은 비유와 설법으로 제자와 중생들에게 설명했다. 이 내용이 원음으로 담긴 것인 근본경전이고, 이를 바탕으로 삼은 것이 바로 '근본불교'이다. 이 맥락을 놓치면 근본불교는 물론 대승불교도 이해하기 힘들다.

이 책은 불교를 공부할 때 놓치기 쉬운 이러한 맥락을 정확히 짚어준다. 저자의 30년 불교 내공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중생들을 고통에서 건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붓다의 애절함이 가슴에 와 닿는다.

불교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정밀한 답

초기불교와 근본불교는 같을까 다를까? '근본불교'는 석가모니 붓다 가르침이 불교 역사서 단순히 초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의 전 역사를 통해서 전개된 모든 불교의 근본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불교는 언제, 무엇이 왜 곡되었는가? 붓다 입멸 이후 여러 교단으로 나뉘면서 가르침이 달라졌다. 그 과정에서 대승불교는 왜곡된 불교 이해를 바로잡고, 불교를 사회적으로 실천하려는 의도에서 나타났다. 근본불교를 통해 석가모니 붓다의 가르침을 잘 계승하여 발전시킨 대승사상을 확인한다.

무아·중도·연기·열반의 원류 좇다

불교 최초기 내용이 담긴 〈아함경〉과 〈니까야〉는 불교의 '근본경전'이다. 근본경전을 통해 전승되는 붓다의 가르침으로, 중도·연기·열반 등 불교 핵심 교리를 왜곡 없이 붓다의 원음으로 통찰한다. 붓다는 형이상학적 문제에 정말 무관심했을까? 붓다는 세계의 유한성과 무한성, 영혼의 존재 유무 등에 대해 침묵했다. 이에 대한 기존의 해석은 붓다가 형이상학적 문제에 무관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근본경전을 면밀히 살펴 붓다의 침묵은 중도(中道)를 드러낸 것으로, 불교 이해의 출발점으로 보았다.

▲저자 **이중표 명예교수**는?

전남대 철학과를 졸업한 뒤 동국대 대학원서 불교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전남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정년 후 명예교수로 위촉됐다. 호남불교문화연구소 소장, 범한철학회 회장, 불교학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불교 신행 단체인 '붓다나라'를 설립하여 포교와 교육에 힘쓰고 있다.

책 속의 밑줄 긋기

"외도가 이야기하는 '일체는 무상하다'는 말은 '모든 것은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은 존재하지만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이고, 붓다가 이야기하는 '일체는 무상하다'는 말은 '모든 것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으므로 잠시라도 지속하고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말하는 존재는 '인식된 것'이다. 우리가 "무엇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보이면 있다고 말하고, 들리면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존재의 근원은 인식이다."

"근본불교의 교리는, 12입처(十二入處)는 18계(十八界)로 발전하고, 18계는 5온(五蘊)로 발전하며, 5온은 12연기(十二緣起)로 발전한다. 이와 같이 불교의 사상적 특징으로 이야기되는 연기설은 12입처에서 시작되어 12연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의미한다."

"우리가 생사의 세계에서 윤회하는 것은 식(識)이 사라지지 않고 머물면서 커감으로써 '나'라고 하는 존재가 끊임없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식은 이렇게 생사윤회의 근본이다. 불교에서 윤회의 주체를 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식이라는 존재가 죽지 않고 생사윤회를 거듭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불교를 오해하는 것은 이렇게 식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이다."

"화엄철학으로 해석한 사찰 벽화 순례기"



사유를 쏟아, 붓다
강호진 지음
철수와 영희 펴냄
1만8천원

이 책은 흥국사 범어사 보광사 선운사, 통도사 등에 있는 사찰 벽화를 화엄 철학으로 살펴본 '그림으로 보고 소설처럼 읽는' 24가지 불교철학 이야기를 담았다.

한국 사찰 벽화는 불교적 가르침을 담은 동시에 그 이외의 것들까지 포용하는 거대한 문화적 용광로이다. 도교와 유교, 그리고 〈서유기〉와 〈삼국지〉 등의 고전이 사찰 벽화 속에서 날줄과 씨줄처럼 교차해 독특한 한국문화의 무늬를 만들어낸다. 이처럼 사찰 벽화가 지닌 잡스러움의 미학을 가장 온전하고 풍부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불교의 화엄철학이다. 화엄철학은 들판에 핀 꽃들을 가리지 않고 끌어모아 하나의 거대한 연화장세계로 펼쳐내는 불교교학의 정점으로 흔히 잡(雜)화엄이란 말로 불린다. 화엄은 잡스럽다는 말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고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유일한 불교사상인 것이다.

화엄철학은 고독한 개별 존재자 사이의 근원적 연관성과 연대의 불가피성을 꿰뚫는 통찰(多卽一)인 동시에 전체적 질서 속에서 함몰되어가는 존재자의 개성과 자유를 회복시키는 실천(一卽多)을 담고 있는 원융(圓融)의 철학이다. 따라서 화엄의 인식론은 근대적 학문체계 속에서 분리되어버린 불교 수행과 불교철학, 그리고 불교미술을 하나로 통합해서 읽어낼 수 있는 도구이자, 호교론과 종교적 폐쇄성을 벗어나 존재 각각의 개성과 자유를 회복할 수 있는 실천적 기반으로서 역할도 한다.

불교 도상학 넘어 일상에 맞닿은 사유와 비판

이 책은 화엄의 사상을 기반으로 사찰 벽화를 단순히 도상학적으로 설명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일상과 현실에 대한 해석학으로 나아가려 애쓴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언어와 깨달음의 단절, 앎과 실천의 분리, 종교적 배타성, 종교계 내의 남성우월주의, 타자에 대한 수용 등의 다양한 이야기를 다룬다. 나아가 불교계나 학계에서 그동안 통용되었던 권위적 해석들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독자들에게 드넓은 이해의 지평으로 나아가길 권유한다.

김주일 기자

▲저자 **강호진**은?

부산에서 태어나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했다. 불교와의 인연은 3천배를 하고 성철 스님에게 일각(一角)이란 불명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오직 일체중생을 위해서 살라'는 성철스님의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았지만 지금껏 별달리 일체중생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다. 저서로는 〈한 방울의 물을 마르지 않게 하는 법〉 〈10대와 통하는 사찰 벽화 이야기〉 등이 있다

상담환영
■ 빙의에 시달리시는 분 !!
■ 신(神)내림 받기전에 신기운에 시달리시는분!
■ 신을 받았어도 제대로 못하고 신기운 때문에 힘드신분!
■ 신기운을 떼어내고자 하신분!
☎☎☎☎☎ 전화상담,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
▣ 빙의치유 , 천도 / 전문상담 합니다! ▣ 신기운 제거및 차단, 벗어나기 최고! 전문상담 합니다!
[상담대상]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가지 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 연예인, 연극인, 영화배우, 탈렌트, 가수등 마음이 여리고 순수하고 감정, 감성 중심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빙의와 신기운에 잘 접속되고 벗어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인생 전체가 불행해집니다! (예 : 만성우울증, 공황장애, 공포증, 불안장애등에는 반드시 빙의가 접속되어 있습니다!)
◉ 다 그런건 아니지만 직업상 시신을 자주 접하는 사건 현장 담당 경찰업무 하신분, 119대원, 소방업무 종사자, 장례식장 종사자 등 심약하신 분들은 빙의에 접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예 : 악몽자주꿈, 망자가 꿈에 자주 나타나는 경우, 외상후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 몸이 무겁고, 만성 피로감등)
◉ 이상행동, 어느 시점 이후 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등
◉ 빙의천도. 신기운 다스림은 아무나 하는게 아닙니다! 잘못하면 큰일납니다!
◉ 올바른 신심(信心), 부처님 법에 대한 확고한 법력(法力)을 갖추어 정법(正法)으로 영가 중생 제도 원력(願力)을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 원격치유가능 (환자직접 오지않아도 됨) ⇨ 최고 전문가만 가능 ◉ 문제해결, 증상해결 중심으로 상담
◉ 전생빙의치유, 마스터과정수료 ◉ 20여년 빙의, 신기운 천도 경력 노하우 갖춤
◉ 증세가 오래 되었거나 심한 경우는 일정기간 간격을 두고 천도정성과 사후 관리를 꾸준히 받으면서 가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원격사후관리 가능)
전국 최고. 빙의치유. 천도. 신기운 제거. 차단. 벗어나기 전문상담원 제주불교금강선원
제주불교금강선원 ☎ 064-746-0789 오시는길 :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 3층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뇌의핵심(송과체)·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예약) : ☎ 010-5282-7292 ■ 등록번호 : 138-50-00260
강남구 논현동 기공소리 통증치유명상센터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모든 통증 치유'
기공의 대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